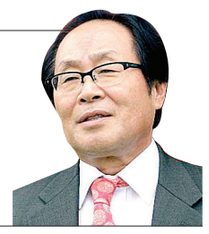
현불논단

전법·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지구촌 곳곳서 아픔과 비탄이 넘쳐나
작금의 참상들 인간의 시간을 파괴해

삶은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항해의 나침판은 지혜, 견인력은 자비

올해 한국불교의 긍정적인 면은 '전법'
불교는 붓다의 '전도선언'서 비롯됐다
전도선언, 중생에 대한 자비를 기반해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해를 넘기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아픔과 비탄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의 절규다. 해를 보낼 때면 새삼 '시간' 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학책, 철학책 등 다양한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 보나 항상 오리무중의 늪에 빠진다. 지구별의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삶의 틀로 삼아 사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한 것 같다. 태양계에 사는 인간은 지구별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일 년이라 하고, 스스로 한 번 돌면 하루라고 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물에 사는 또는 땅속에 사는 생명체의 시간 단위가 있다면 무엇일까. 시간은 원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결국 시간의 비밀은 모든 존재의 비밀인 것 같다. 〈금강경〉의 흉내를 내보면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이름이 시간일 뿐"인가.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대승불교에서 제기된 진속이제(眞俗二諦)가 새삼 다가온다. 진제는 궁극적 진리이고, 반면 세속제는 상대적 진리로써, 인간들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속제는 하화중생과 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 시간은 인간 삶의 속제이고 진제의 방편이고 결국 그 둘은 하나로 융합될 것이다. 시간은 결코 오리무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항해해야 할 바다이다. 인간이 시간이라는 방편을 만든 것은 '저 언덕' 에 가겠다는 지혜와 의지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런데 이를 어쩌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바다에서 난파당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올해는 유난히 지구별에 재난이 많았다. 종족과 이념의 우상에 빠져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모습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다. 중동의 '가자' 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은 인간이 얼마나 바보같은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어리석은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인 지구별 자체 자체까지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 한국사회에도 갈등과 미움이 넘쳐 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저 언덕' 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하고, 배에 탄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배를 모는 견인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여실하게 나타난다. 항해의 나침판은 붓다가 제시한 지혜이고, 배를 모는 견인력이 바로 자비이다.

한국불교의 올해를 뒤집어 보면 긍정적인 면이 바로 '전법' 의 강조이고 실천이다. 한국불교의 생명줄로 전법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불교는 '깨달음' 이라는 화두로 자신을 키워 왔다고 볼 수 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불교가 존재하는 것은 붓다의 깨달음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붓다의 '전도선언' 에서 출발한 것이다. 붓다의 전도선언은 바로 중생에 대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이 새롭게 다가온다. 날숨과 들숨의 사이가 바로 시간이고, 시간은 그만큼 절박하다. 산다는 것은 백척간두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전법의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자비의 숲이 울창하기를 염원한다. '저 언덕' 은 지고의 행복 터이다. 〈자비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송마나의
시절인연

영원한 하루

2023년이 저물어 간다. 사람들은 한 해가 덧없이 흘러갔다고 회한에 빠지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내년에도 농부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상인은 가게에 나가 장사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당나라 때 목주 도명(睦州 道明 780~877) 선사는 젊은 운문(雲門)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올 때마다 "이르고 일러라"라고 소리치며, 대답을 못하는 운문을 한 손으로 밀어버리고 토굴로 들어갔다. 운문 스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목주 선사의 토굴 안으로 들어가리라 사생결단하고 다시 그를 찾아갔다. 이번에도 선사는 "이르고 일러라"라고 소리 질렀고, 운문은 대답을 못해 우물쭈물했지만 자신을 밀어내는 그의 팔을 붙잡고 힘을 다해 한 쪽 발을 사립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문이 닫혀 다리가 부러지면서 "아야"라고 소리쳤는데, 자신이 지른 소리에 그만 진리의 눈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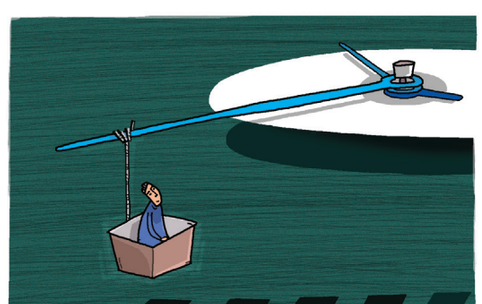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목주 스님은 네가 부처인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겠느냐는 질책이었을 것이다. 한 해 두 해 세월만 보내면서 언제까지 죄인처럼 목에 철가(鐵枷)를 두르고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같은 소리를 하며 허수아비처럼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목주 스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뜻깊은 법어가 아닌가.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때 시(時)와 사이 간(間)이 합쳐서 된 것이다. 끊어진 것이 시간이요. 이 끊어진 시간을 사는 것이 참 인생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과 내일은 끊어져야 하고, 올해와 내년은 끊어져야 한다. 오늘은 오늘의 나고, 내일은 내일의 나다.

오늘도 하루이고, 내일도 하루라면, 그것은 계속되는 하루이고, 묵은 하루이다. 죽은 하루이지 산 하루가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죽은 하루를 백 년을 살고, 천 년을 살아도 그것은 죽은 하루의 연속이다. 시간의 축적이 영원이 아니다. 끊어진 시간만이 참 시간이고, 산 시간이다. 끊어진 오늘이 새 오늘이고, 끊어진 내일이 새 오늘이다. 끊어진 오늘이 영원한 하루이다.

지나간 한 해를 후회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다.

〈작가〉

社說

내년에도 '부처님 법 전합시다'

올해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단 한 개의 키워드는 '전법' 이다. 그 시작은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비롯됐다. 43일간 1167㎞ 7대 성지를 도보로 순례한 사부대중의 여정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실감하고 전법을 통한 중흥의 원력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를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로 살아갑시다."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남긴 회향사는 한국불교에 전법 활성화의 트리거가 됐다. 자승 대종사가 제시한 원력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대학생 전법' 이라는 구체적 실천 과제로 이어졌다.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함으로서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통해서는 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해 대학생 전법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소신공양으로 격외의 가르침을 전한 자승 대종사의 유지는 이제는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화두가 됐다.

(사)상월결사도 1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에 원명 스님을 선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며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대학생 전법' 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관을 변경해 사무총장 체제를 만든 것도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대학교 불교동아리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전법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불교는 호감도 1등'에 만족할 건가

매년 연말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종교 인식조사들을 발표하곤 한다.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항목이 종교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다. 다행히 불교는 항상 호감도 순위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다.

이는 템플스테이와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으로 대중들이 불교를 문화로써 향유하며 불교에 호감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반대로 살피면 대중들은 불교를 문화적 향유할 뿐 신앙으로써 불교를 접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호감도 1위' 라는 포장을 걷어내면,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 조짐들은 확인된다. 12월 6 · 13일 공개된 한국리서치의 종교인식조사에서도 불교는 호감도 1위 종교였지만, 내실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희박한 정체성이다. "불교 신행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자는 27%에 머물렀다. 개신교인 중 70%가 자신의 신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2013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70%가 수행 ·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4년 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신앙생활 만족도 항목에서 불교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10년 전 조계종이 조사한 결과와 현재의 통계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호감도 지수가 높은 건 불교의 강점이 분명하지만, 호감도 높은 사람이 곧 잠정적 불자라는 환상에 취해서도 안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다녀가지만, 불자가 반등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불교에 대한 허들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핵심신도를 어떻게 양성할지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새해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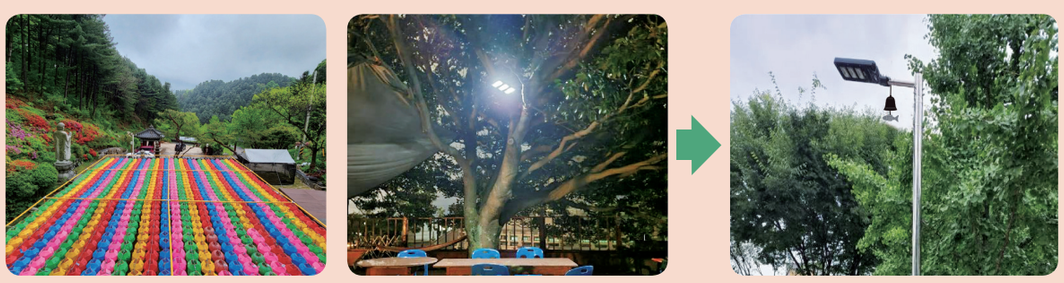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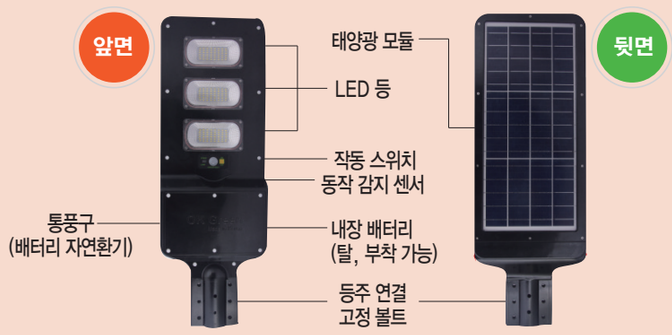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제품세부소개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